權近 ‘ 孝行錄 ’ 주해의 경세론적 의미

〔연재 마지막회〕

姜 文 植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 ‘ 효孝、제弟 와 ‘ 치국治國 의 연결

권근은 ‘ 효행록후서孝行錄後序 ’에서 ‘ 효행록 ’이 ‘ 효경孝經 ’과 마찬가지로 귀천貴賤과 종시終始의 윤리倫理로서 변하지 않는 도리를 모두 갖추었으며, 나아가 인륜의 변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환란에 대해서는 ‘ 효경 ’에서 말하지 못한 것도 다 기록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 효행록 ’이 ‘ 효경 ’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 효경 ’과는 차별성을 갖는 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효행록 ’이 ‘ 효경 ’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그 내용 구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 효경 ’은 제목에서는 비록 ‘ 효 ’만 제시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 효孝 ’와 ‘ 제弟(제悌) ’가 대등하게 중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효孝、제弟만큼의 비중은 아니지만 ‘ 효경孝經 ’‘ 규문장閨門章 ’에서는 부부간의 윤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 효행록 ’에 수록된 62항목의 설화들이 효행에 관한 것이 53편, 형제윤리에 관한 것이 7편, 부부윤리에 관한 것이 2편 등으로 가정윤리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효와 제를 동등하게 중시하였고 부부윤리까지도 언급한 ‘ 효경 ’의 구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효경 ’과 ‘ 효행록 ’은 이상과 같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 내용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 효경 ’은 효孝、제弟의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이를 군주에 대한 충忠으로 수렴함으로써 집권적 관료제에 적합한 정치이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반면 ‘ 효행록 ’은 효、제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 규범을 기록한 ‘ 효경 ’과 차이를 보인다. 또 효를 중심으로 부부、형제간의 윤리를 포괄하는 가정윤리에 한정될 뿐 효의 윤리를 국가적 충忠의 덕목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내용이 없는 것도 ‘ 효경 ’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권근의 ‘ 효행록 ’ 주해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 효행록 ’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권근 역시 일반인이 주인공인 설화에서는 가정윤리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설화와 이제현의 찬을 주해하고 논평하였다. 그러나 효행의 주인공이 군주나 재상인 경우에는 효孝、제弟 윤리의 실천을 ‘ 치국治國 ’, 즉 국가 경영의 문제와 연결시켜 해석하였다. 이러한 면은 ‘ 효행록 ’ 후집에 수록된 ‘ 주후문안周后問安 ’、‘ 한황상약漢皇嘗藥 ’、‘ 영공분수英公焚鬚 ’、‘ 문정부배文正拊背 ’ 등의 논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군주의 효성과 정치를 연결시켜 보는 해석은 ‘ 주후문안周后問安 ’과 ‘ 한황상약漢皇嘗藥 ’에 대한 논평에서 찾아볼 수 있다. 권근은 ‘ 주후문안周后問安 ’의 논평에서 문왕文王이 성인聖人의 덕德으로 인륜人倫의 바름을 얻어 자식된 도리를 다하였기 때문에 주周나라가 지극한 덕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 한황상약漢皇嘗藥 ’에서는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대代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 직접 태후에 대한 병수발을 했던 일에 대해서,

이것(태후 병수발)은 실로 포의布衣로서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왕으로서 능히 행하였으니, (이것이) 한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순후해지며 거의 형벌을 쓰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 주周나라의 정치에 비할 만한 융성함을 이룬 까닭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하여, 한문제의 지극한 효성이 한나라의 융성함을 이룩하는 데 있어 근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권근이 군주의 효행을 치국治國의 문제와 연결시켜 보는 태도는 ‘ 예기천견록 ’에서도 발견된다. 즉 그는 ‘ 예기천견록 ’ 권20의 ‘ 제의祭義 ’에서,

선왕先王이 천하를 다스린 바의 도가 반드시 효에 근본하였고 효는 제사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능히 부모를 섬기는 제사에 효를 다한다면 효제孝弟의 지극함이 신명神明을 통하고 사해四海에 밝혀져서 천하가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게 된다.

라고 하여, 군주가 국가를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주 스스로 솔선하여 효제의 예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가 정종、태종대에 올린 시무時務 상소에서 국왕의 성효誠孝를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권근은 군주가 솔선해서 지극한 효행을 실천하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런 인식에 기초하여 ‘ 효행록 ’의 논평에서 군주의 효를 중요하게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하의 효孝、제弟 실천을 ‘ 치국 ’의 문제로 연결시켜 해석한 것으로는 ‘ 영공분수英公焚鬚 ’와 ‘ 문정부배文正拊背 ’에 대한 논평을 들 수 있다. 먼저 ‘ 영공분수英公焚鬚 ’에 대한 논평에서 권근은 당나라의 재상 이적李勣이 누이의 병구완을 하면서 직접 죽을 끓이다 수염을 태울 정도로 성의를 다하였으며, 그 마음을 옮겨 임금을 섬김으로써 공명이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 ‘ 문정부배文正拊背 ’에 대한 논평에서는 송나라 재상 사마광司馬光과 그 형 백강伯康의 우애에 대해 서술하면서,

사마승상司馬丞相이 형 백강伯康을 섬기면서 그가 주리고 추울까 걱정하여 늘 어루만지면서 물었으니, 우애의 지극함이 이에서 더할 바가 없다. 이 마음으로 임금에게 충성하여 송나라 왕실을 빛내고 도와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라고 하여 사마광이 송나라 조정에 충성을 다하여 태평성대를 이룬 것의 근본이 형제간의 지극한 우애에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권근은 ‘ 영공분수英公焚鬚 ’와 ‘ 문정부배文正拊背 ’에 대한 논평에서 공통적으로 ‘ 효孝、제弟의 마음을 옮겨 임금을 섬겼다 ’는 점을 분명히 하였는데, 이는 ‘ 효孝로 임금을 섬기면 충忠이 되고 경敬으로써 어른을 섬기면 순順이 된다 ’고 하는 ‘ 효경 ’의 논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 효행록 ’의 논평 중에는 군신간의 믿음을 강조한 대목이 있어서 주목된다. 이 내용은 ‘ 증자각통曾子覺痛 ’에 대한 논평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권근은,

어머니로서 아들을 믿는 것이 이처럼 독실한데도 세 번 살인했다고 알리자 의심이 없을 수 없어서 북을 던지는데 이르렀다면, 골육 사이에도 혹 모함하는 말을 살피지 못하고 서로 의를 상하는 경우가 또한 많을 것이다. 하물며 임금과 신하이겠는가?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여, 부모-자식간의 신뢰가 돈독하지 못하면 서로를 의심하게 되어 의義를 상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주와 신하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독실하지 못하면 모함하고 이간질하는 말에 현혹되어 역시 군신간의 의義를 잃게 될 수 있으므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부모-자식 사이의 문제를 군신관계로 발전시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효孝、제弟의 실천을 ‘ 치국 ’의 문제와 연결시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권근은 가정 윤리에 국한되어 있는 ‘ 효행록 ’에 대해 논평하면서 이를 국가 경영의 문제로 연결시켜 해석하였다. 그 결과 ‘ 효행록 ’이 갖는 현실적、경세적 효용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3) 불교에 대한 비판

권근의 논평 중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내용으로 불교에 대한 비판이 있다. 권근의 불교 비판은 이理의 인식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권근은 ‘ 심기리心氣理 ’의 주석에서 ‘ 석씨釋氏는 이理가 심心에 갖추어져 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 종宗을 삼는다 ’고 하여 불교가 심心을 종주로 삼으면서도 그 근원이 되는 이理의 존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불교는 만물의 근원인 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理의 부정은 현실 생활에서 윤리의 부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덕四德(인仁 · 의義 · 예禮 · 지智)과 오상五常(오륜五倫)으로 대표되는 유교적 강상윤리綱常倫理는 이理가 인간 사회에서 구현된 덕목이므로, 이理를 인식하지 못하고 거스르는 것은 곧 사덕과 오상의 강상윤리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권근은 이와 같은 관점에 입각하여 ‘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등에서 강상윤리를 거스르는 불교의 반인륜성을 비판하였다.

‘ 효행록 ’ 주해에 나타난 권근의 불교 비판 역시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 효행록 ’ 주해의 불교 비판은, ‘ 심기리心氣理 ’의 주석이나 ‘ 주역천견록 ’의 불교 비판이 이론적 측면에 치중된 것과는 달리, 구체적 사실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효과적인 비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 효행록 ’ 주해에 나타난 불교 비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부처의 도움에 의지하여 복을 빌고 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고, 둘째는 불교적 의례儀禮, 구체적으로는 화장火葬 제도에 대한 비판이다.

먼저 부처의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 효행록 ’ 후집의 ‘ 장원요목張元療目 ’에 대한 논평에 등장한다. 이 설화는 장원張元이 할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승려를 불러 7일 동안 ‘ 약사경藥師經 ’을 독송하게 하자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금비녀로 할아버지의 눈을 치료해 주었고, 잠에서 깨어보니 할아버지의 눈이 나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권근은 장원의 할아버지가 눈을 뜬 것은 장원의 지극한 효성에 천지신명이 감응한 것으로, 장원의 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지 불경佛經을 읽은 효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경전(약사경藥師經)을 외우자 눈이 나았다는 것은 곧 효성에 대한 감응이다. 천지신명이 하늘에 있으면서 환히 알아서 지극한 정성에 대해서는 반

11면으로계속

담백한 맛의 명문
도봉산원조 10년전통
山두부집
도봉산대등산로입구
등산객눈길이팔리고
하산자에겐 참새방앗간!’
대표 權五玄
서울 도봉구 도봉동 411-1
전화 02) 954-1183 · 1184
HP) 010-8003-6996
100명 동시 예약 가능